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교회학교 부장회의가 1시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원로 나들이가 22일(화)에 있습니다. 화천으로 갑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속장인도자 나들이는 24일(목)에 있습니다. 퇴촌으로 갑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11월 첫 주일(3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빛찬양대에서 주관하는 합창 세미나가 오늘 오후 3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김승애 선생님이요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한성건 씨와 정지혜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26일(토) 낮 12시 청운교회(역삼동)에서 있습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한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조건들을 수첩에 적어보십시오.

렘 31:27~34 / 시 119:97~104
딤후 3:14~4:5 / 눅 18:1~8

요3:22-30

식 당 봉 사 : 박미영 문현미 이은주 윤정화 박재란 이재문 이민범
다음 주 식당봉사 : 최현옥 김순자 공재량 이수정 권현숙 홍주희 이소순 임주빈
오늘설거지봉사 : 4남선교회
다음 주 설거지 : 황재모 강지선 5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몽골사막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근본이요 지향점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고도 깊은 가을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믿음의 눈을 들어 높은 곳과 깊은 곳을 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과 표면의 것에만 사로잡혀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듯 어려움을 겪는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욕망을 자극하는 것과 재미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 약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삼상 15:20-23

마 22:15-22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권혁순 박해경 김경혜 김남종 오복순 김명순 이교영 김용태 박정숙
 김재환 김진선 김정길 최숙화 김정민 이해령 김철수 유영남 김홍기
 박병구 박상규 박시내 박준희 이기분 박창운 허정윤 방극숙 안정숙
 원주신 윤미경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이자영 이종배 고정림 임 영
 정경례 임주빈 최현옥 정종삼 정현모 조병주 조순덕 조현권 박아영
 최재욱 이수정 한상익 정영선 허준호

감사헌금

강순배 권미숙 김기석 김희우 문금석 박병구 박세식 박영욱 오 선
 박옥란 배미숙 서정순 손규현 오보영 신민철 왕수명 이광용 이병수
 이유일 김미희 정영우 김지윤 하진솔 허정호 무명7

생일감사헌금

김인걸 배삼순 조관행 홍선희

녹색꿈헌금

김진선 김재환 박호규 강영님 이정우 장윤지 정영례 무명4

장혜숙	백혜숙	백혜숙	장혜숙
노순옥	박성희	김윤수	이준림
김재흥	최경미	이재문	차혜심
장영숙	신영신	최종미	김진경
정경례	진정숙	이봉배	박옥순
박홍재	곽권희	백묘현	문복순
권미숙	박미영	권미숙	허정윤
이순정	김금순	김금순	이봉옥
이형숙	윤수진	이형숙	윤미경
안홍숙	오현정	김명희	오현정
정영선	서정순	홍춘숙	김경혜
박혜경	조항미	정현	정현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신진식	곽상준		
장영숙	김세진		

마음으로 읽는 글

가을의 말

하늘의 흰 구름이
나에게 말했다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흐르고 또 흐르다 보면

어느 날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

뜨락의 석류가
나에게 말했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라
잘 익어서 터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면
어느 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

- 이해인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삶의 지향을 분명히 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십시오.

아멘. 이 세상살이에 흠뻑 빠져 우리가 하나님나라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나라에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별 모임	옴기 / 김기석 목사 기도 : 최숙화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재훈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장영숙 전도사	하진솔 선생 이증자 집사

10	영접위원	윤석철 권혁순 박범희 권미숙 박미영 박혜경
	헌금위원	조병무 이형숙

적이 지닌 신성한 신비

자신의 마음을 세심하고도 충분히 깊게 살펴보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적의 슬픔을 헤아리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리스인들은 호전적인 민족이었지만 이러한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현존하는 최초의 그리스 비극은 아테네가 기념비적인 살라미스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패배시키고 난 후 8년 만인 기원전 472년에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공연되었던 아이스킬로스의 <페르시아인>이다. 아테네가 승리를 거두기 전, 페르시아는 아테네 전역을 약탈과 방화로 짓밟고 아크로폴리스에 새롭게 지어놓은 아름다운 신전들을 모두 파괴했다. 하지만 아이스킬로스는 극을 통해 청중들에게 페르시아인들을 위해 슬퍼해주고, 살라미스 전투를 적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청했다. 그는 싸움에 저 달아난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 그의 어머니인 아토사 그리고 그의 선왕이 다리우스의 영혼을 동정하고 존중하면서 시종일관 뼈에 사무치는 사별의 슬픔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별은 인간의 삶 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대로의 두려움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도덕경>의 참뜻이 그렇듯이 승리주의를 드러내거나 흠족해하지도 않는다. 페르시아인들은 비탄에 빠진 민족으로 제시된다. 같은 조상을 모신 자매들로 표현된다.

하지만 아이스킬로스는 그리스와 페르시아는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서로에게 구속되어 있다고 넌지시 암시한다. 이 극에서 다리우스는 그리스를 침략하여 신에게서 인정받은 자기 제국의 경계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재난을 가져온 것이라고 인정하며 과도한 자존심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 그 어느 누구도

더 많이 차지하려는 탐욕에 빠져 자신의 행운을 경멸하거나,

모든 재산을 헛되어 낭비해서는 안 된다.

고귀한 옥좌에 계신 제우스께서는

오만하고 거들먹거리는 자들을 엄하게 응징하신다.

하지만 아테네인들도 그들과 똑같은 자만과 탐욕의 죄를 지었다. 델로스 동맹은 본래 페르시아의 위협에 함께 맞서고, 그리스 도시국가들 간의 우정과 형제애를 다지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한 목적을 위반한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아테네인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살라미스 해전 이후, 아테네는 다른 도시국가들을 침략하기 시작했으며, 전리품을 호사스러운 건축물을 짓는 데 사용했다. 아이스킬로스는 청중들에게 아테네가 이제는 독선적으로 적의 죄악에 대해 거들먹거리며 이야기할 입장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제시한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정신이 필요하다. 아이스킬로스보다 수세기 앞서 호메로스는 전쟁 중에 적과 조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가 8세기에 쓴 서사시인 <일리아스>는 그리스와 트로이 간의 10년 전쟁 중에 일어났던 작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다. 그리스 진영의 중요한 전사인 아킬레우스는 아가멤논 왕과 언쟁을 벌인 후 이기적인 분노에 휩싸여 병사들을 퇴각시키고 군막에 처박혀버렸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그리스에 커다란 손실을 끼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한 혼란 속에서 아킬레우스의 친구인 파트로클루스가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에게 살해당하게 된다. 죄의식과 슬픔 그리고 분노에 휩싸인 아킬레우스는 거의 반미치광이가 되어버린다. 그는 헥토르에게 결투를 신청하여 그를 살해한 다음, 트로이의 왕족들이 성벽에서 뻘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헥토르의 시체를 끌고 파트로클루스의 무덤가를 돌면서 끔찍하게 훼손시켰다. 게다가 그는 매장할 수 있도록 시신을 돌려달라는 가족들의 요청도 거부했다. 그것은 헥토르의 영혼이 영원히 안식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리스 진영으로 몰래 잠입한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를 찾아가 아들의 시신을 돌려줄 것을 애원한다. 변장을 벗어던진 그 늙은 왕은 놀랍게도 아들을 죽인 아킬레우스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며 ‘힘약한 살인자며,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의 두 손에 입을 맞춘다. 아무런 조건 없이 굴욕을 감수하는 프리아모스 왕의 태도는 아킬레우스로 하여금 자신의 죽은 아버지를 향한 깊은 슬픔을 일깨워준다. 그리고 그 역시 ‘이제는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파트로클루스를 위해’ 울기 시작한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여안고 각자의 죽은 자들을 위해 비통해한다. 마침내 아킬레우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프리아모스의 손을 잡고, ‘흰 머리카락과 흰 수염을 동정하며’ 부드럽게 그를 일으켜 세운다. 그는 정중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이 약하고 늙은 왕이 들고 가기에는 시신이 너무 무거운 것이라고 걱정하며 헥토르의 시신을 건네준다. 그리고 이 두 적수는 침묵의 경외심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

격렬한 전쟁의 와중에 공유하게 된 고통과 동정심은 그들 각자의 증오를 초월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자신의 적이 지닌 신성한 신비를 볼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다.

- 카렌 암스트롱, 「카렌 암스트롱, 자비를 말하다」 중에서